의령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2024년

SJ의령군산림조합

응봉산선도산림경영단지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1 개 요

1. 목 적

태풍·호우, 산불 등으로 인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대규모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경영주체의 임무·역할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선도단지 산주 및 지역주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산림분야 풍수해·산사태·산불 등 재난 위기대응 업무 수행 시 경영주체의 대비·대응활동에 적용
- ○ 태풍 및 호우, 산불 발생으로 인해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

2 선도 산림경영단지 일반현황

- ○ 단지면적 : 843 ha(용덕면 138ha /유곡면 652ha/정곡면53ha)
- ○ 동의면적 : 643.4 ha(76.3%)
- ○ 전체산주 : 271명 (1인당 평균소유규모 3.1ha)
- ○ 동의산주 : 195명 (72.0%)
- ○ 전체필지 : 285필지
- ○ 동의필지 : 214명 (75.1%)

응봉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추진현황도('19~'23)

경영주체 : 의령군산림조합(2019년도 착수)

면　　적 : 843ha

편백 치유의 숲(120ha)



하트임도

(망개원, 하트산림운동장)



명품 소나무숲가꾸기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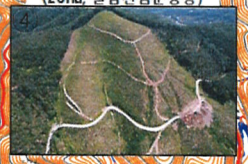
(85ha)



종합집약 경영임지

(편백,의령꿀밤,8자형산림운동장)





밤나무 특화단지

(20ha, 꿀밤산림운동장)



부자 산림텃밭

(부자숲길, 텃밭산림운동장,두릅특화단지)

상촌리

상곡리

오목리

신촌리

중교리

용소리

이목리

범례

명 칭	구 분
임도	
리면경계	
편백조림 (120ha)	
밤나무조림 (20ha)	
두릅조림 (2ha)	
정미재조림 (1ha)	
숲가꾸기 (85ha)	
대형 운동장 (5개소)	

임도신설 : 0.83km(2023년)

임도밀도 : 15.10m/ha(20.61km)

3 위기 형태

① 태풍·호우

○ 태풍이 발생되면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하여 풍수해·산사태(토석류 포함) 및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임도유실, 산림경영시설, 입목, 산림소득작물 등의 피해 발생

② 산불

○ 날씨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 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불이 계속되어 피해가 발생

○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산림헬기 등 진화자원의 투입이 어려워 대규모의 인적·물적 (산림 내 산림소득작물, 각종 산림경영 관리시설, 중요문화재·사찰, 주변 주택, 기간산업 등 주요시설) 피해 발생

○ 산불 발생으로 선도단지 인접마을 일반화재로 확산·진행되는 경우

4 단계별 주요 업무

가. 대비(예방)단계

① 태풍·호우

○ 기　　간 : 연중을 대상으로 하며, 2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점추진

○ 주요업무 : 산사태 재해예방체계 구축, 취약지역 관리 및 역량 강화 등

② 산불

○ 기　간 : 산불발생기간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시기적으로 12월 중순 ~ 1월말, 10월 말 중점 추진

○ 주요업무 : 산불 발생상황 주시,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산주 및 지역주민 계도

나. 대응단계

① 태풍·호우

○ 기　　간 :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 주요업무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수신에 따른 모니터링 및 대응취약지역 현장점검 강화, 인명·재산 피해 예방조치 등

② 산불

○ 기　　간 : 2 ~ 3월, 5월, 11 ~ 12월 초순

○ 주요업무 : 지역주민 산불예방 홍보·계도활동 강화

* 선도운영협의회 및 산주협의회 등을 통하여 산불방지 노력을 위한 홍보 계도 강화

다. 복구·진화 단계

① 태풍·호우

○ 기　　간 : 산사태 발생 직후부터 발생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추진

○ 산사태 피해조사 지원, 응급복구 지원, 발생지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 추진, 복구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

② 산불

○ 기　　간 : 산불발생 직후부터 진화완료시까지

○ 산주 및 지역주민 대피안내, 영림단 등 산불진화 가용인원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위기경보 수준】

❶ 풍수해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태풍·호우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준비단계 가동 – 여름철 산사태 비상대책본부(5.15~10.15) 운영	징후감시 활동
주의 (Yellow)	◦ 태풍·호우 예비특보, 주의보 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비상 Ⅰ단계 가동	기상정보 모니터링 및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 태풍·호우경보 또는 산사태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비상 Ⅱ단계 가동	신속 협조 체계 점검
심각 (Red)	◦ 태풍·호우경보 또는 산사태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비상 Ⅲ단계 가동	유관기관 요청시 즉각 협조 체계 돌입

※ 호우주의보 : 6시간 강우량이 70mm(경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경보 180mm)이상 예상될 때

❷ 산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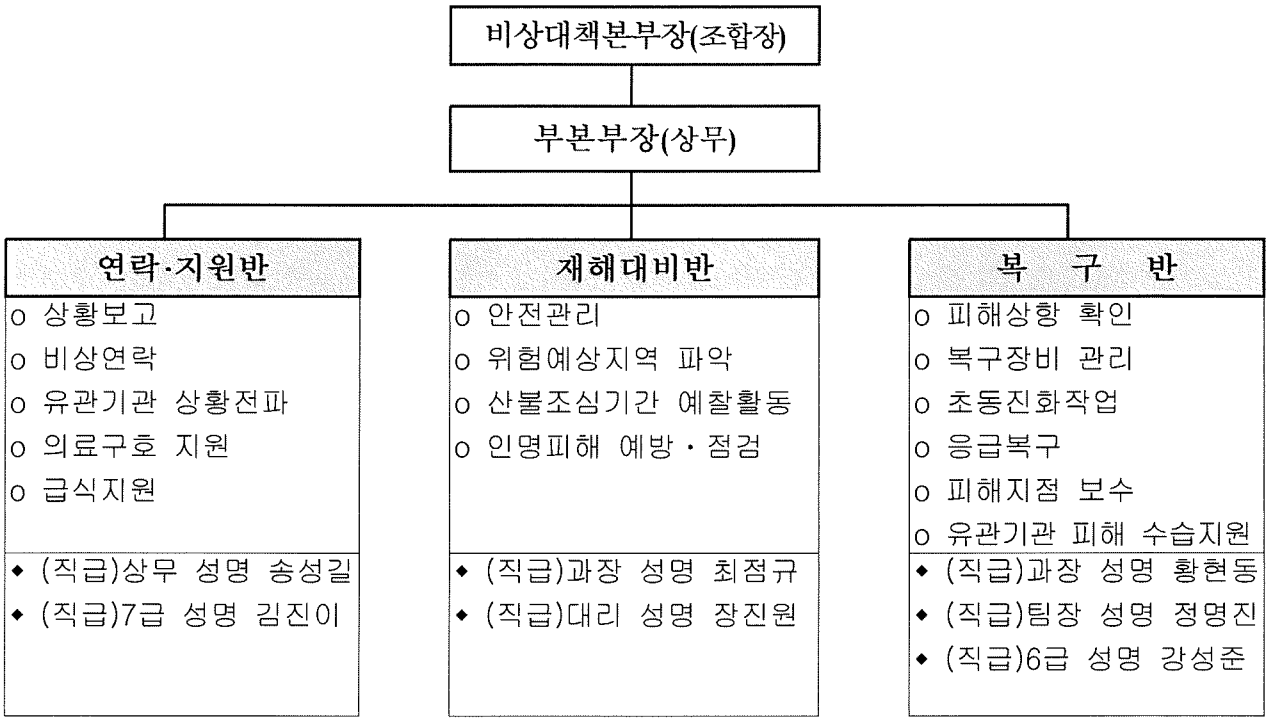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 심 (Blue)	o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주의」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징후활동 감시
주 의 (Yellow)	o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조체계 가동
경 계 (Orange)	o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응태세 강화
심 각 (Red)	o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력대응

5 위기대응 조직체계

가. 비상대책본부의 기능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수습의 효율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풍수해·산불 발생 기간에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

나. 비상대책본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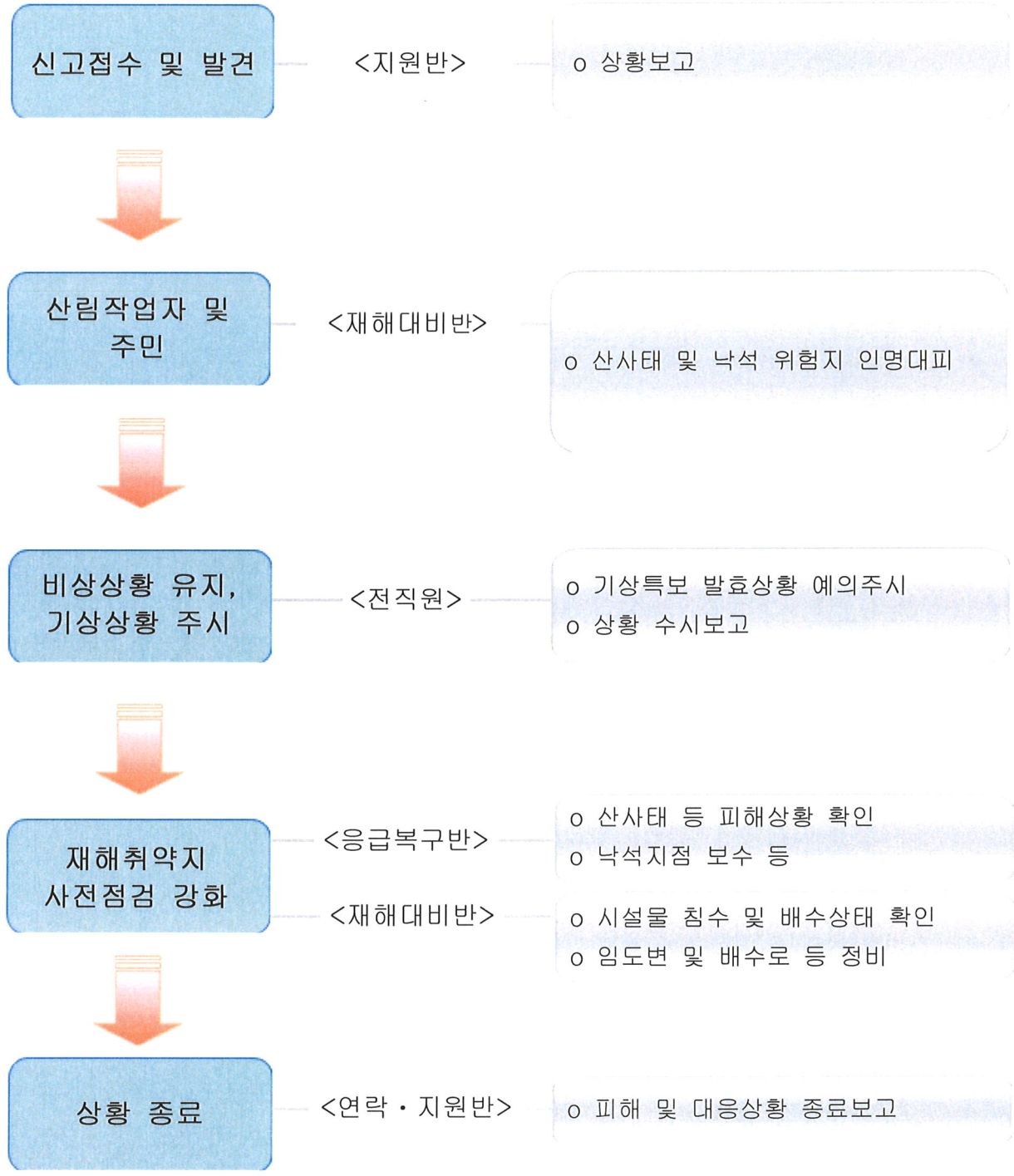
다. 단계별 대응

단 계	대 응 조 치 내 용
초동조치	○ 상황실 가동, 이용객 안전관리, 피해수습 지원 ○ 상황파악 및 상황보고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대응조치	○ 재해대책반 편성 운영 ○ 피해상황 판단 및 상황 보고
처리단계	○ 피해수습 및 처리 ○ 피해경위 상세내용 파악 보고
사후관리	○ 처리상황 종합보고・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 ○ 피해 산주 및 지역주민 지원

6 재해 상황별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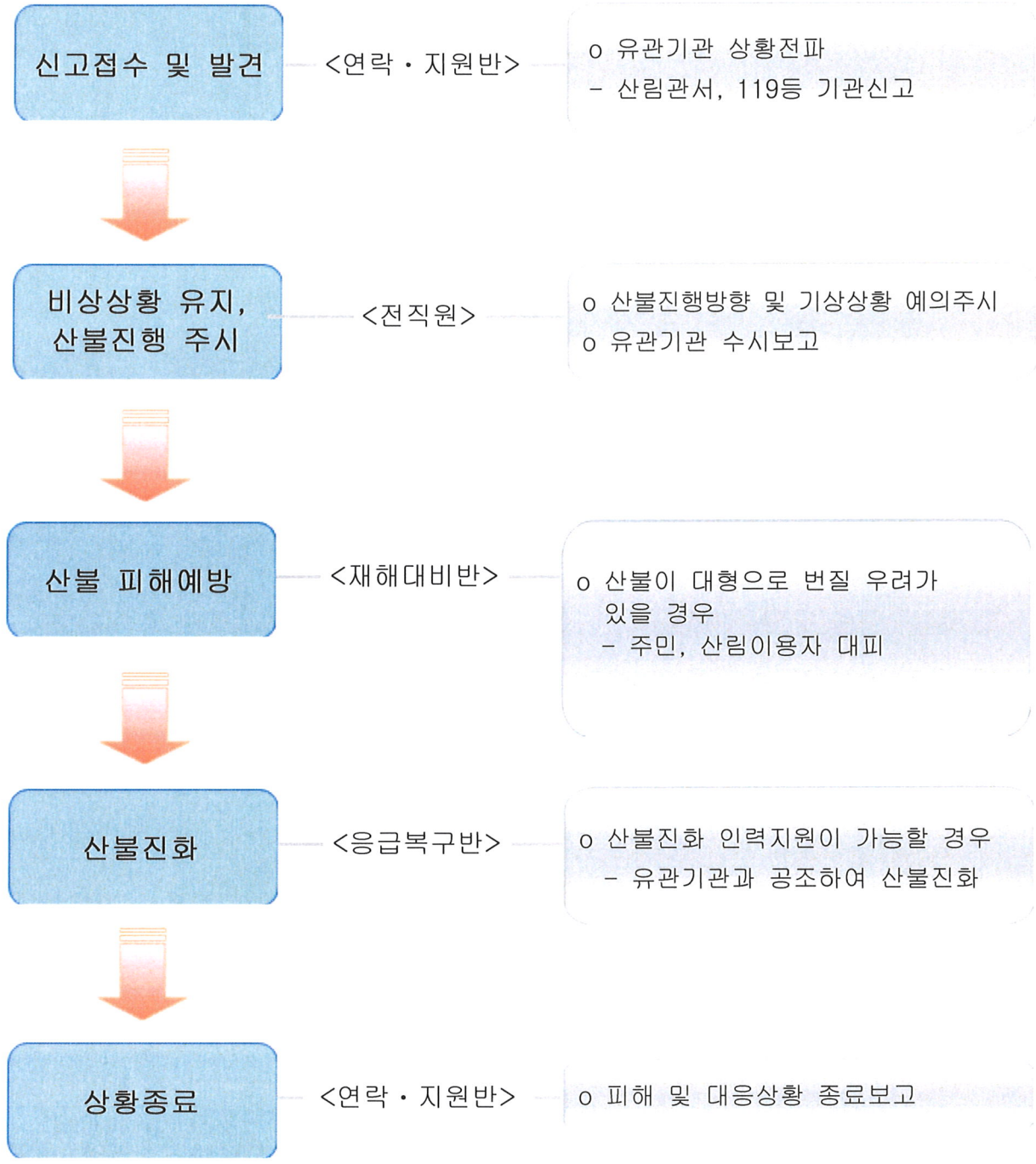
가. 풍수해

○ 기상특보 발효,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지 경우



나. 산불

○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 산불발생 시



7 풍수해 단계별 행동요령

가. 대비단계

○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위치 파악

○ 태풍·집중호우 대비 측구 등 사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비재해기간(11월 ~ 익년 5월)

나. 대응단계

1) 위기경보 : 관심(Blue)

○ 태풍·집중호우 발생시기 전까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사업지 일제 점검 및 정비 실시

- 태풍 발생시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등 재해 응급대책 강구 후 특별관리

○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확보

- 마대류, 말목, 비닐, 묶음줄 등을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적정량 확보

2) 위기경보 : 주의(Yellow)

○ 태풍·호우 예비특보, 주의보 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면 시공 중인 선도 단지 내 산림사업장의 재해우려지역 점검·정비 실시

- 특히, 임도시설지 인근에 민가가 있는 재해취약지역 및 집중호우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절·성토사면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및 배수로 정비 등 사전조치 강구

- 측구·배수관등이 메워져 있거나 유목(流木) 등이 걸려있는 곳은 정리·보수

- 공사 중 자연 물길을 변경했거나 메운 곳은 자연 상태대로 정비

3) 위기경보 : 경계(Orange)

○ 태풍·호우경보 또는 산사태경보가 발령되어 태풍·호우 등에 의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상황별 보고체계 확립 및 재해취약지역 점검·응급조치

○ 협조체계 점검 실시

-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유관기관 소관부서의 전화번호·담당자 등을 정확히 파악

○ 비상대책본부 운영체계 점검

- 재난 상황의 위험 정도에 따른 비상대책본부 운영체계 점검

4) 위기경보 : 심각(Red)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로 피해상황 파악

- 피해상황 파악 보고

○ 기상특보 해제 후 선도 산림사업장 사업지 점검

- 피해상황 파악 현장조사는 반드시 2인 1조로 편성하여 현장조사 실시
- 피해상황 최종 집계 후 보고

다. 복구단계

○ 응급복구 및 피해조사 지원

- 피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시 가용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
- 산주 및 지역주민 요구 시 우선 복구 지원

○ 응급복구 지원 실적 보고

<참고 1> 비상연락망


비 상 연 락 망
감 리 사
발 주 자
의령군청
055-570-2114
본 사
의령군산림조합
055-573-2585
의령군청(민원)
055-570-2114
사무실
(055-573-2585)
한국산업안전협회
(경남)
055-752-4030
조합장 장원영 010-3837-3429
지도 상무 송성길 010-9595-0883
신용 상무 김양균 010-8515-1337
김진이 010-2221-6454
경영책 임자 최점규 010-6564-1288
사업 담당 장진원 010-8487-3255
사업 과장 황현동 010-3870-9964
강성준 010-5015-7999
이의겸 010-3805-1551
정명진 010-9208-1429
신선호 010-7376-5015
의령소방서 119구조대
055-570-9353
한국전력공사
123
의령소방서 119안전센터
055-570-9316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의령군보건소
055-570-4010
의령병원
055-573-4100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055-239-0900
KT
국번없이 100번

<참고 1> 위기상황 관리일지

○○ 선도산림경영단지 위기상황 관리일지

상황발생 : OOOO년 OO월 OO일 OO시

■ **종류** : 집중호우, 수해, 산불, 시설물화재, 안전사고

■ **사건상황** : 6하원칙에 의거 작성(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 **위기대응 인원배치(이름을 기재)**

o 상황총괄 : OOO

o 연락·지원반 : OOO, OOO, OOO, OOO

o 안전점검반 : OOO, OOO, OOO, OOO

o 재해대비반 : OOO, OOO, OOO, OOO

o 응급복구반 : OOO, OOO, OOO, OOO

■ **시간별 대응상황**

시간	담당반	조치사항	상황
15:00	상황총괄반	호우특보, 산불피해경보 발효	
15:50	재해대비반	산사태 취약지구, 산불예방	
18:00	연락지원반	기상상황 파악 및 현재상황 보고	
18:10	재해대비반	시설물 침수 및 배수상태 확인 등	
18:30	응급복구반	산사태 등 피해상황 확인 등	
		:	
22:05	연락지원반	산사태 피해상황 보고	

<참고 2> 풍수해·산사태(태풍·호우)시 국민행동요령

□ 태 풍

태풍특보시 대비요령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특보기준

명칭	주 의 보	경 보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Q&A≫

Q : 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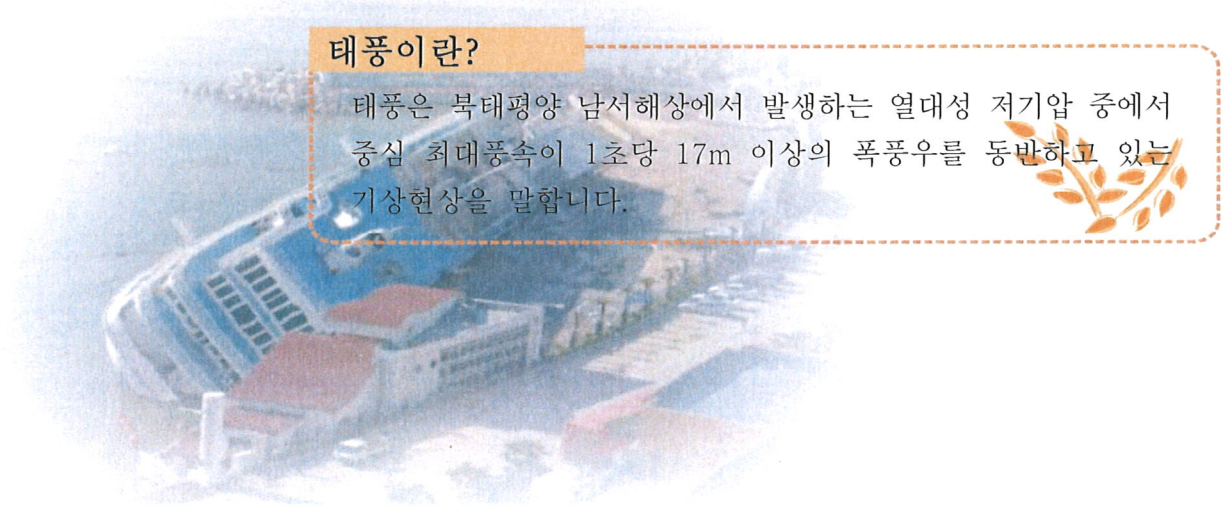
A :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은 라디오, TV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수구, 배수구, 집주변 축대·담장이 붕괴 우려가 있는지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여야하며, 특히 침수·산사태 위험이 있는 주민은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오기 전에는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태풍이란?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 어업활동을 하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 주택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치웁니다.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태풍 주의보 때는

1. 도시지역에서는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2. 농촌지역에서는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집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3. 해안지역에서는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해안도로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집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해수욕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 경보 때는

1. 도시지역에서는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2. 농촌지역에서는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산사태 징후가 있는 때는 》

장마철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 이때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해안지역에서는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웁시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가족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시다.
-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맙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 호 우

호우특보시 대비요령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사전에 옮깁시다.



-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사전에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시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시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특보기준

명 칭	주 의 보	경 보
호 우	6시간 강우량 70㎜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6시간 강우량 110㎜ 이상 12시간 강우량 180㎜ 이상

≪Q&A≫

Q : 산간계곡에서 고립이나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대비요령은 ?

A : 산간계곡을 찾는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기상정보와 호우상황을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시로 파악하고, 호우 특보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울리면 신속히 대피하시면 됩니다.
고립되거나, 급류를 만날 경우에는 물이 불어난 계곡을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반드시 119에 구조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우 예보 때는

-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연락해 알아 둡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예상될 때를 말함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세요.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
-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시다.
-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합시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때는

1. 도시지역에서는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2. 농촌지역에서는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집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시다.
-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는 행위는 위험하니 하지 맙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시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미리 취합시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시다.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3. 해안지역에서는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맙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연락합시다.
- 출입문, 창문 등을 잠급시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가는 어망·어구 등을 건지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맙시다.

4. 산악지역에서는

- 산사태 발생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시다.
- 재배시설 등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합시다.
-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호우 지나간 후에는

-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구조적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 가스가 새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 산사태위험 사전 감지요령

□ **산사태 위험 사전 감지요령**

①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으로 산사태 위험이 커짐

②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산 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산사태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음

③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

④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

□ **산사태 주요 요인**은 모암(암석)의 종류, 토양상태, 지형, 나무의 종류 등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

① 모암(암석)이 화강암,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많이 발생
- 암석의 표면이 갈라지거나 한쪽 방향으로 금이 많이 생긴 암석지가 더 위험

② 토양상태는 토양층이 서로 다를 경우에 많이 발생
- 모암(암석) 위에 모래질이나 부식토로 형성된 토양, 절개면에 서로 다른 토양층(예를 들면, 자갈층과 점토층 등)이 나타나는 이질층이 있으면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③ 산사태는 급경사지보다는 중간정도의 경사를 지닌 산지에서 더 많이 발생
- 급경사지에서는 산사태 요인이 되는 토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오목한 지형의 경사면 길이가 긴 산지가 주의를 요하는 지형

④ 산림상태로는 뿌리가 깊이 박히는 활엽수림보다는 뿌리의 깊이가 얕은 침엽수림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

⑤ 골짜기의 길이가 긴 지형, 상류는 넓고 하류가 좁은 지형은 상류부에서 발생된 산사태가 하류부로 밀어닥칠 가능성이 있음

⑥ 산허리에 군사용 진지나 이동통로(교통호) 등 빗물이 고일 수 있는 지형지물이 있는 곳은 고인 빗물이 토양을 밀어내어 산사태가 발생

<참고 4>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A

Q :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A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방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 **(괭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산불예방 안내

➜ 산불예방 안내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월, 11~12경)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30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불 예방은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

➜ 화재로 소실된 축사관리

- 산불로 인해 축사가 전부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 합시다.**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합시다.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감전이나, **누전·합선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합시다.

➜ 화재발생으로 놀란 가축관리

- 빠른 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먹는 양을 봐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합시다.
-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
-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줘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 기능 강화제,** 비타민제재, 수액,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은 잘 보살펴 주도록 합시다.
-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말린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시다.**

➜ 부상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 큰 부상을 입은 가축은 신속히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합시다.
-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합시다.
-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

➜ 방역대책

- 산불지역의 가축은 연기, **화염,**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사후조치요령

-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해야 합니다.
-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해**(겉 뿌림 초지 조성)**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합시다.
-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곳은 사료용 옥수수 등 대체 사료작물을 파종해야 합니다.